

## 읽을 내용 (Article): 복음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The Gospel empowers us to forgive)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받은 상처가 클수록 용서하기란 더욱 힘든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종종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잊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승진을 위해 나를 희생시킨 상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요? 혹은 내 뒤에서 나를 중상모략 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복음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우리 삶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남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God's movement)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행동을 취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행동을 취하셨습니다(롬 5:10\*).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사 59:2\*\*).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거부하고, 관계를 끊을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신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롬 5:8\*\*\*).

\* **로마서 5 장 10 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 **이사야 59 장 2 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 **로마서 5 장 8 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reconciliation)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화해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생생하게 나타나는지 고린도후서 5 장 19 절에서 20 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크레딧과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니셔티브(gracious initiative)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에베소서 2:8-9\*). 그러나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반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Salvation is not universal).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에베소서 2 장 8-9 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피해자)이 우리(가해자)를 향해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2). 성경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우리도 남들을 파격적으로 (radically) 용서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깊은 기쁨과 자유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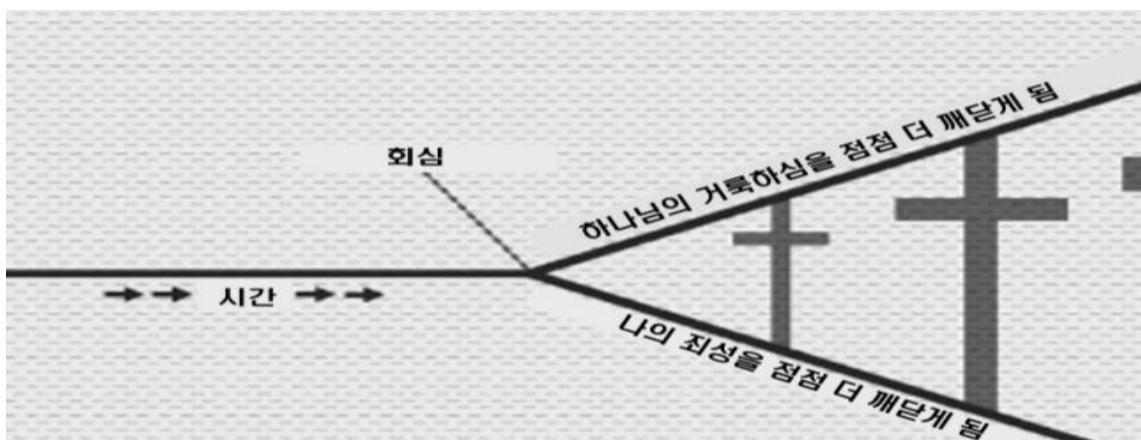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즉, 우리가 먼저 용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화해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항상 상대방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크리스천 작가이고 상담가인 댄 앨런더(Dan Allender)는 도움되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빛을 탕감해 주는 마음이지만, 회개할 때까지는 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다(Forgiveness involves a heart that cancels the debt but does not lend new money until repentance occurs).”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회개로써 다가오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해서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 가해자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같은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은혜와 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연히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how to forgive)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empowers us to forgive)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난 도저히 나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내 죄보다 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작게 생각하는 반면에,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은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제한된 견해를 갖고 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제한된 시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을 받아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우리의 빛진 죄악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의 불완전함의 차이를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중요성이 우리 의식 가운데 커질수록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 또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아무리 그 죄가 우리에게 심한 것이라고 해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와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상처와 수치를 모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회개와 회복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베풀게 하십니다.